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6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6. 28.(목) 10:00 ~ 12:33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6차

◆ 일시 : 2018. 6. 28.(목) 10:00 ~ 12:33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6명)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팀장, 000 팀장, 000 주무관

◆ 심의안건 (총 9건)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 4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 : 3건
- 문화재 지정 심의 : 1건
-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 : 1건

(개의)

○ 000(시문화재관리팀장)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회의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4건인데, 경희궁지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 등 4건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가 3건으로 상허 이태준 가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신축허가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심의 1건인데 시의 유형문화재 지정 심의 봉은사 판전에 대한 심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에 대한 건이 있는데 이 건이 좀 많은데 합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9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예. 첫 안건부터 하죠.

(서울역사박물관 등 관계자 입장)

예. 설명하시죠.

○ 서울역사박물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의 건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000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업추진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린 뒤에 저희 설계사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박물관은 경희궁지의 보건시설 건물하고 승정문 앞의 전면 마당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변 사적지는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궁지 주변의 토사유실이 우기철에 반복이 되고 있고 물이 솟구치는 현상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하월대 앞 계단의 우측 일부가 흔들리고 약간 처짐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계획했고요. 철제 그레이팅이 되어 있는데 궁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문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 정비 사업을 신청하고 금년 1월 5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통지를 받아서 3월 20일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설계를 완료하고 오늘 현상변경 심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저희 설계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예.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공사는 문화재 구역 내의 배수로 정비와 일부 마당 포장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자문을 좀 받아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계단이 약간 밀리고 침하되는 부분을 드잡이 해서 보수하는 내용과 스틸 그레이팅으로 마감된 배수로를 석재로 교체하는 공사,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닥이 노후화돼서 갈라짐이 심하고 포장 사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궁 내에 있는 우수가 마당으로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부분 문제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현상변경 허용 기준 내의 저희가 보수하는 구간은 문화재 구역 내부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기본적인 가설공사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이 마당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철거공사 그리고 스틸 그레이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집수정과 배수로를 철거해서 석재로 교체하는 공사들입니다.

현황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경희궁 영역이고요. 이게 송정문 앞 마당입니다. 그리고 보수 대상인 계단입니다. 이렇게 침하되어 있고 약간 뒤틀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배수로 상태는 이렇게 돌과 그레이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경희궁 내의 정비되어 있는 배수로입니다. 이런 형태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마당에서 물이 솟구치는 구간이 이런 형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석재로 마감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이번에 공사할 구간은 이 그레이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구간만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영역 전체의 배치도이고 이 앞부분입니다.

확대도입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배수로는 석재로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지만 이 앞 구간은 그레이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레이팅으로 마감된 것을 석재로 다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솟구치는 구간이고 이 계단 자체가 드잡이 보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포장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포장하는 공사와 석재 드잡이 공사 그리고 배수로 교체공사입니다.

세부적인 도면으로 보시면 이것은 가설공사로서 일부 공사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가설을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의 동선을 차단하고 동선을 배면 쪽으로 유도해서 관람동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재 드잡이는 약 절반 정도만 이것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현 상태에서만 석재만 조금씩 움직여서 드잡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팅의 현황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스틸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고 밑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집수정과 배수로들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석재로써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좀 키워서 우수량이 좀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집수정 용량을 좀 키웠고 배수호가 집수정 규격을 키워서 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집수정 용량을 키운 형태입니다. 이것은 집수정 나머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이 솟구치는 구간의 집수정입니다. 계획은 집수정을 그 솟구치는 구간



에 묻고 주변의 땅 밑으로 유공관을 매설해서 바닥에서 솟구치는 물을 흡수한 다음 측면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이 상세도이고요. 유공관이 묻힐 상세도이고요. 펜스 상세도, 공사 안내판. 이게 총 공사내용이 포장공사 그리고 계단 정비하는 공사 그다음에 계단 배수로 정비하는 공사, 집수정 교체하는 공사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집수정3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인테이크가 D200짜리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300짜리가 하나예요. 계산해보니까 나가는 게 모자라요.

○ 문화재 설계자

일단은 3에 있는 집수정은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구간입니다. 별도로,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쨌든 빨리 빼야 한다는 인테이크 쪽 4개 해서 diameter로 하든 r^2 에 4곱한 것과 그냥 저 300에 1.5 곱하기 제공한 것으로 하면 그리로 나가지는 않아요, 물이. 단순해요. 이쪽에 있는 것을 D400으로 해야 할 거예요, diameter 이쪽에 있는 것. 단순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과, 이쪽이 커야지. 안 그러면 용철수가 됐든 들어오는 것이 되든 다 overflow가 나는데 저기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알 텐데.

○ 문화재 설계자

유공관 4개가 묻혀 있는 구간은 바닥에서 솟구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000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졸졸졸 오는 게 아니라 별안간 한꺼번에 오면 어쨌든 저 배수로로 짹 짹 빠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IN'이라고 쓴 것은 물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돼서. 이쪽은 나가겠다



는 건데 들어오는 것 많고 나가는 것 적으면 거기서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이쪽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D를 400으로 하면 맞을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집수정 크게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집중호우가 오면 어쨌든 더하기 빼기 해서 이쪽 나가는 쪽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뜻 보니 이 3번만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지. 나가는 쪽이 많게끔, 그런데 너무 또 하면 저기 끝에 모이는 데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원리보다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그럼 되겠어요? 얼마 안 됐는데. 계산 안 해서 했는지 그냥 무작정 위만 덮어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나.

○ 문화재 설계자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마 증가시켜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기울기는 어떻게 맞춰요? 이쪽 제일 맨 마지막 집수정 쪽의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 빼는 게 문제면 그것을 단면 잘라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문혀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적이 그러니까 레벨도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물 빠져나가는 레벨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물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하니까.

○ 문화재 설계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배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고요.

○ 000 위원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그 레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 나중에 그것을 하는 거지 지금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공사할 때 말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갖고 얼마큼 되는지도 해야지 나중에 시에서도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지.

○ 문화재 설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관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집수정만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 000 위원

작은 것도 해야지 왜 안 해. 아까처럼 저렇게 그냥 해놓으면 하나하나지. 내가 시민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발언대 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공사에요. 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집수정만 넓어서 뭐해, 거기 또 하는데. 단위시간당 얼마 나오는 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지.

○ 000 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흡관 같은 것도 있는데 갈기도 하신 것 같은데, 집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 문화재 설계자

새로 신설되는, 즉 밑에서 솟구치는 구간에 집수정이 신설됩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갖고 마저 하세요.

○ 000 위원

배수용량하고 구배는 정확하게 맞춰와요.

○ 000 위원

예. 두 개만 하시면 되겠네요.

○ 000 위원

됐어요, 나가세요.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나가세요.

(서울역사박물관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

저기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기 앞쪽은 낮고 마당은 또 높아요. 거기는 또 종로구청에서 관할해서 관리가 이월화 됐어요. 저것은 낮은 지역인데, 첫째는 배수로 뚜껑이 스틸로 돼서 종로구청은 돌로 잘해 놨는데 저기는 또 엉망이라서 저것은 바뀌야 하겠고 계단은 이쪽에 드잡이 좀 하는 거고 아까 마당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용출수가 솟아서 거기가 엉망이 됐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흙관을 갈아야지.

○ 000 위원

그것은 기존 저쪽 깊은 맨홀과 연결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구배하고 배수용량은 체크해서 시행하라고 하면 될 거예요.

○ 000 위원장

문 안쪽은 종로구에서?

○ 000 위원

아니,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당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저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 000 위원

그런데 공사 또 하나 할 때 맞춰서 하면 덜 하겠죠.

○ 000 위원

그러니까 배수용량하고 두 개는 확인해서 조건부 승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예. 조건부로. 맨홀을 키울 필요는 없죠?

○ 000 위원

예. 보니까 거기가 작아요. 네 개가 뒤에 반대로 나가는 것은 400짜리 하나니까 그게 r^2 의 면적에 비례하니까.

○ 000 주무관

배수용량과 구배 재확인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가결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장

예.

(은평구청 등 관계자 입장)

○ 문화재 설계자

진관사 칠성각, 독성전 보수·정비 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 현장 확인하고 현장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도 나와서요. 공사 내용이나 과업위치, 과업목적 이것은 전과 같습니다. 세부 공사내역도 칠성각, 독성전 지붕보수, 마루보수, 기단, 창호 보수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2009년에 공사했던 내용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독성전 공사 2009년에 했던 거고요. 진관사 배치도.

이것은 설계 때 받은 자문의견서이고요. 현장에 자문위원께서 오셔서 두 분이 자문한 결과가 근본적으로 지붕 물매에 문제가 있는데 하부 가구부재를 교체하기는 시기상으로 어려우니까 번와보수 중심으로 하되, 번와보수 때 지붕물매를 최대한 조정한다. 그리고 창호와 마루 이완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칠성각 기단의 강회다짐이 필요하다고 자문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칠성각, 독성전입니다. 지붕이 약간 더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009년에 공사하기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독성전의 용마루가 약간 더 높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9년 이후로 약간 낮아졌는데 현재 이것을 이만큼 더 올리려면 하부의 목부재까지 건드려야 하는데 현재 하부의 목부재 상태는 팬참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심하고 기와 잇기 해서 조정하고 나중에 이 부분 하부구조까지 수리를 할 때 여기를 맞춰서 다시 하는 것으로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칠성각 현황이고요. 기단 모습, 창호 뒤틀린 것, 평면도인데 마루 해체해서 다시 조이는 내용으로 저번 내용과 같습니다. 칠성도 우측면도의 와구토 손상된 것 그다음에 독성전의 현황입니다. 지붕 부분, 창호 부분, 마루 부분입니다. 마루 보수하는 부분이고 지붕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호의 뒤틀림이 심해서 창호를 잡는 게 보수 내용입니다. 마루 해체 후 재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정면도 지붕 부분 도면이고요. 정단면도입니다. 창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거기 배수는 잘 돼요? 비탈 뒤에 있는 데에 해서, 배수로도 안 보이던데.

○ 000 위원

그 물이 정말 작아요. 배수는 이쪽 기반하고 레벨 차이는 있던데요.

○ 000 위원

저쪽에 언덕바지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재 설계자

여기 석축이 있고요.

○ 000 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어디로 빠져요?

○ 문화재 설계자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런데 마루 같은 것 습하지 않아요? 장마 때야 그렇지만 보통 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기둥이나 마루가 부식되고, 10년 전에 공사할 때?

○ 문화재 설계자

아직 그 후에는 괜찮았습니다. 마루가 이완이 좀 돼서 그렇지 부재 자체는 괜찮습니다.

○ 000 위원

레벨도 별 문제없고요?

○ 문화재 설계자

첨판 부분에서 울퉁불퉁하게 돼서.

○ 000 위원

바닥이 통풍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 문화재 설계자

여기 통풍은 됩니다.

○ 000 위원

흙이 계속 덮어놔서 저게 낮아요. 기단이요.

○ 문화재 설계자

기단의 기능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 000 위원

그런데 위에 지금 강회다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갈라지는 게 제가 보면 이쪽의 배수라든가 기단이 거의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완되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차제에 이쪽에 배수호가 급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4,000여만 원에 건물 두 동을 해야 하니까 배수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죠.

○ 문화재 설계자

거기까지 건들기에는.

○ 000 위원

예산이 4천여만 원에 두 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물매 때문에 갔는데 물매를 급하게 하려니까 하부 목부재가 새로 다 바뀌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 물매를 잡기는 어렵고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서까래 썩거나 그러는 것은 없죠?

○ 문화재 설계자

부재는 괜찮습니다.

○ 000 위원

문짝도 마루가 건조 과정에서 뒤틀어지고 그래서 조이는 거지 새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마루를 조아서 다시 까는 거고.

○ 문화재 설계자

목부재를 교체하는 것은 없고요. 일부 보충하는 것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청 등 관계자 퇴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뒤쪽의 기단이 15cm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빗물 같은 게 그 위로 쏟아질 때 그 뒷산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 000 위원
계단이 넓더라고요.
- 000 위원
뒤의 계단은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 000 위원
칠성각 오른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물 구조체에 문제는 없어요?
- 000 위원
건물에 문제는 없고 문짝이 빠져들거리고 마루판이 건조되면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조아주는 거예요. 벌어진 틈만 새로 보강하고 마루판은 다 쓰는 거예요.
- 000 위원
오른쪽의 와구토가 탈락되고 창호도 비틀어지고 해서 그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니군요.
- 000 위원
문짝이 건조가 되면서 빠져들거리고 하는데.
- 000 주무관
저번 심의 때 조건부 가결이 됐거든요. 현장조사 해보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원안가결하시죠.



(중량구청 등 관계자 입장)

○ 중량구청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5호 충익공 신경진 묘역 비각 건립공사 현상변경 심의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량구 망우동 산 69-1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경진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조 8년 신립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병자호란에 공을 세워서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신도비는 널찍한 화강암을 거북모양으로 조각한 후에 그 위로 비신을 세우고 지붕돌을 올린 모습으로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박태유가 글씨를 썼습니다. 신도비의 건너편 남서쪽으로 신경진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수정비 신청은 3차이며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보수정비의 경우에는 신도비의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차 보수정비는 봉분 및 묘역 주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도비는 최근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한 상태이지만 보호각이 없는 실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생물학적인 손상과 외부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도비 주변의 대지가 문화재 지정 이전인 1985년도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동선과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이 굉장히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도비 규모와 양식에 맞는 보호각 설치가 시급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세요. 이번 신도비는 조선 초기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신도비의 규모가 총고가 3.8m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평면 계획을 두 칸을 6m×6m짜리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7.5m×7.5m 규모로 계획을 해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귀퉁이에 있는 보호구역 경계가 걸리는 상황이 되면서 규모가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 규모와 양식에서 보시다시피 화강석 초석의 전체 기둥 사이즈는 390사이즈로 해서 기둥주고는 2.7m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계획한 상태이고요. 이번 사업비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서는 건축공사비는 평당 약 2,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현재 신도비가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비신과 귀부 부분, 상부 비신 위에 있는 이수 부분도 이끼나 지의류가 끼어 있는 상태여서 보존처리 공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이에요. 이 물매를 현재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변으로 해서 배수계획을 같이 양쪽으로 돌려서 현재 이 우수관을 따로따로 하는 평면계획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신도비 받치고 있는 게 거북이입니까, 용입니까?

○ 문화재 설계자

거북이입니다.

○ 000 위원장

거북이인데 지어놓고 안에서 볼 때 많이 내려가 있어서 등만 보이지 하부는 거의 안 보일 것 같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높이 위에 대량하고 거의 만나는 부분이어서 건물 외부 높이도 너무 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들보하고 딱 만나잖아요. 그 상부가 얼마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 문화재 설계자

일단은 GL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황 레벨을 보수해서 상부하고는 750 정도 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도 그 정도 높이이고요. 현황은 900 정도 올라가서 보호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바깥 GL과 내부 GL이 현재 픽스 된 상황에서 최선으로 잡아본 높이이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단면 부분은 저희가 이수 부분이 보 하부에 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위의 반자틀까지 일단 여유 부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자 이상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습기도 더 많이 찰 것 같고 보는 사람의 시각도 별로 안 좋았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거북이도 다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비각이 주처럼 보여서 저것을 하려면 내가 보면 레벨을 좀 다시 맞춘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굉장히 옹색해요. 멀리서 보면 그냥 비만 보이는데 원래는 사실 거북이도 엄청나게 멋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현대 시민들한테 맞지. 한자로 써 있는 게 크게 저기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낮고. 그래서 굉장히 옹색해서 저것을 GL 현재 것을 맞추니까 공사비도 적게 들고 뭐도 좋은데 저러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진짜 하고 싶으면 레벨도 맞게 해서 그 밑의 주변정비를 레벨을 어떻게든지 해서 해야지 저것은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주차장 정도 깎아내고 낮추고 저것도 높이고 해서 하는 게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000 위원

신도비가 본래 이 위치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본래는 비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 문화재 설계자

네.

○ 000 위원

그러면 건물배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조정이 안 되나요? 서쪽이 좁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 문화재 설계자

아니요. 이쪽 진입부로 해서 봤을 때 신도비가 남향을 하고 있어요. 남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대로 저희가 배치한 거고요.

○ 000 위원

건물의 폭이 안 맞잖아. 동서가 안 맞잖아, 지금. 서쪽이 높이가 안 맞잖아.

○ 000 위원장

남쪽이 정면이다 이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장

그러면 좌우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 000 위원

서쪽이 좁고 그렇잖아.

○ 문화재 설계자

그러면 제가 평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m에 6m 같고요. 현재 지금 이 배수로가,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배수로입니다. 좌우가 대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에 경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 000 위원

그쪽은 그럼 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 문화재 설계자

사유지입니다.

○ 000 위원

배수로가 폭이 저렇게 넓어?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현재 여기가 600짜리로 해서 두께가 600인 거고요. 내부는 지금,

○ 000 위원

빙~ 둘러서 디귤 자로 다 있었다고?

○ 문화재 설계자

네. 이쪽에서. 대신에 이쪽 주차장에서 약간의 슬로프가 있어요. 경사 때문에 여기 지표수가 이리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000 위원

근본적으로 저것을 다시 한 다음에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 데에 건물만 하려니까 오히려 비각만 보이고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것은 막아두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도 안 맞아서 좀...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것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은 이해하지만 짓고 나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중량구청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 000 위원

상황이야 알지. 주차장에 저거 해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 중량구청

소유하고 있는 충익공 신경진 후손들이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충익공 어르신에 대한 관리, 이 묘역하고 비석의 관리는 충장공파라고 해서 직계후손들이 하고 계시고 이 일대를 소유하고 계신 것은 전청공파라고 해서 윗대 어르신들의 후손들입니다. 원래는 이쪽 일대가 충장공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본인들 소유·관리였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이게 전청공에서 소유·관리를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알아봤는데 문화재 지정은 맨 처음에 신도비로 해서 1995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묘역까지 포함해서 다시 지정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최초 지정된



날짜가 95년인데요. 제가 옛날 항공지도를 찾아보니까 1985년 정도부터 이 일대를 주차장으로 전창공 쪽에서 이용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총장공 쪽 어르신들은 곤지암 쪽에서 살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쪽에 살면서 관리하시는데 유료주차장이 현금을 많이 얻어가는 일종의 캐시카우라서 전창공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을 100% 양보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협조를 구한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펜스, 사무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사 차량 진입, 자재를 쌓아놓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하고 나중에 최종 이 비각이 건립되면 이 주변 일대의 반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차량의 진입을 최소화 시키려고 이 주변에, 일단 여기까지 협조를 구한 건데 총장공 어르신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 생각처럼 다 뜯어내고, 지금 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를 750mm 정도 깐 거거든요,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묘역을 정비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 총장공 어르신들의 생각인 거고 결국에는 집안 문제라서 저희가 거기까지...

○ 000 위원

나는 총장공파예요. 왜냐면 나중에 웅덩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집 짓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아요. 통풍도 안 되고 일단 웅덩이 같은 데에 저것을 덜렁 놔두면 누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북이 보이지도 않고.

○ 중랑구청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웅덩이가 돼서요. 2014년 보수정비 때 한 번 배수로를 설치해서 관을 매립했습니다.

○ 000 위원

아니, 배수가 문제가 아니라 레벨이 안 맞는데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시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비각도 키가 낮아요. 그러니까 좀 웅색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나중에 보호가 아니라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고적도 계속 쌓여서 물이 탑에 자꾸 모여서 문제인데 저것도 아무리 저 근처에 저거 했다고 해도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니까 레벨을 맞춰서 조금 위에 있어야 나름대로 비각의 보호도 받고 레벨도 맞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저것은 지금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서. 옆에 있는 다른 콘크리트 공사를 다 털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면 보니까 그냥 그 옆에 바로 짓던데, 그렇죠? 기존에다 그냥 갖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 완전히 뭐... 사이즈도 작아요.

○ 중량구청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최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호구역하고 현황에 맞춰서 최선의 설계를 뽑아내다 보니까.

○ 문화재 설계자

최초 설계는 주칸이 7.5m로 해서 통풍 등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호구역 경계를 찾아보니까 관리정보에 이 처마의 경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모가 일단은 축소가 됐고요. 저희가 봐서도 조금은 전후로 건물과 가까운 느낌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처마 끝선에 대한 보호구역 경계에 대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사모지붕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왕릉도 비각은 맞배지붕으로 하는데 지금 사모지붕으로 하니까 저 보호구역 쪽으로 운신의 폭이 적은 것 같은데.

○ 문화재 설계자

대원각사비나 일단은 격이 좀 있는 비각 건물에서는 모임지붕으로도 계획을 많이 하거든요.

○ 000 위원

왕릉에 가도 신도비가 다 그냥 맞배로 되어 있잖아요. 우진각이 어디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맞배도 있고 팔작도 있지만,

○ 000 위원

그 논리가 좀 이상한데, 왜 더 격을 높여야 해요? 이 사람이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데 왕릉에 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그다음에 신 씨 집안싸움에 왜 공공이 개입해서 이런 문제,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 000 주무관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조사는 했고 조사는 기념물분과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신도비 때문에 기념물분과에서 하고,

○ 000 위원

여기도 신 씨이고 여기도 신 씨인데 자기들이 주차장을 쓰면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 000 위원

지금 설계대로 가면 나중에 100% 하자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노출돼서 공기가 통하다가 비각을 세우면 공기가 완풍이 안 돼서 그리로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사모지붕으로 해서 아주 답답하게 땅도 폭 꺼져 있고 이런데 지금 상태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000 위원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되네요. 볼 수가 없고 정말 머리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부 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 000 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서 이왕 할 것 저기하지 마시고 해서 잘 해서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보존이라기보다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현 저기에 하는 것은 너무 웅색하고 오히려 원래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미리 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000 위원장

주차선도 보니까 건축전문가가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이트에 올리지도 건물 하고도 다 어울리지도 않는 학생 작품 같이 해놨다고. 전체적인 것을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럴까 계획을 해서…

예. 됐습니다.

(중량구청 등 관계자 퇴장)

누군가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 000 주무관

예.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현장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각이기 때문에 건축물분과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주셔서 올해 예산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 설계가 폭 꺼져 있고 위까지 씌우면 저는 오히려 해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설계는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하부는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 000 위원

일단 과잉설계에다가, 저것은 현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부결? 보류?

○ 000 주무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보류로 해서...

○ 000 위원

재설계하라고 하지죠?

○ 000 위원

몇 개의 안을 다시 만들어서 현대적인 것 그다음에 맞배지붕 하고 주변 정리해서 다시 와야 하는 거죠.

○ 000 위원

건물 형태보다 주변 정리부터 되어야죠.

○ 000 위원

예. 레벨이 이렇게 폭 꺼진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 000 주무관

그럼 보류를 해서 여러 안을 다시 제안하라고 하겠습니까.

○ 000 위원장

예.

(중구청 등 관계자 입장)

○ 중구청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용역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세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로서 시도유형문화재 35호로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업지침은 종탑 및 합각지붕 연결부 동판 교체 그리고 내부 천정 회반죽 미장면 보수 등 지붕기와 교체 보수입니다. 현황과 보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수방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문의견서이고요. 현재 배치도입니다. 지금 이게 주출입구이고 이 부분이 신랑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쪽이 익랑인데 이 익랑과 신랑이 이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외부사진이고요. 내부사진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신랑과 좌·우 익랑의 지붕이 마주치는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벽체와 기와가 마주치는 부분에 동판이 감싸져 있는 부분인데 이 동판이 감싸 쥐고 부분이 코킹이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 벽체가 신랑 벽체이고 이 기와가 익랑 지붕인데 여기서 동판이 감싸져 있는데 상세히 보시면 이쪽의 코킹이 노후화 돼서 다 떨어져서 이 사이에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틈이 보이게 돼서 빗물이 이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내부 미장이 탈락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앱스라는 부분에 지붕 상부가 한식기와인데, 현재 이 기와가 쓸림현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홍두깨흙들이 밀려나오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부시망을 설치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부분의 벽체에 빗물이 들어옴으로써 이쪽 미장이 탈락되고 이쪽 부분도 같이 얼룩이 지면서 벽체가 전체적으로 오염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수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쪽 부분의 동판을 전체적으로 해체설치 해서 재설치를 함으로써 코킹도 꼼꼼하게 쓰고 이 동판과 동판 한 판, 한 판을 이음길을 충분히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내부 미장 탈락된 부분도 미장 해체설치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벽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식기와 이쪽 부분도 부분적인 보수가 들어가되 이 내부 구조와 기와가 어떻게 걸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보수 시에 현장자문을 걸쳐서 부분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

코킹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코킹이 얼마 못 가잡아요.

○ 문화재 설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거라.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고치게 되니까 그게 없는 공법으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앱스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는 것 아니에요, 수키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수해서 그런지 회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떤 공법으로 해서 한식기와 전체 해체할 때 디테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문화재 설계자

기와 같은 경우는 그 기와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속이 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습식으로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 000 위원

한 지 얼마 안 될 텐데, 왜... 도면이 옛날 것이 다 있잖아요.

○ 문화재 설계자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없었고요. 이 회철은 성당에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상황이라서요.

○ 000 위원

사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네요.

○ 중구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범위를 잡을 때는 저 한식기와 쪽은 아니었고요. 좌측과 우측 연결 부분의 누수와 그 내부의 회반죽 마감 탈락된 거기를 보수하려고 했는데요. 저쪽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한식기와 쪽에 회반죽으로 덕지덕지 자체적으로 성공회 성당에서 해놓은 사항들이 있고 홍두깨 유실되고 기와가 추락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범위를 확대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중구청

일단은 맞추기는 맞췄습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 가설비용이 반은 좀 안 되지만 좀 많이 portion을 잡고 있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사이즈가 정확해야 현장에서 딱딱 맞춰지는데 안 맞으면 다 코킹이에요. 그러면 5년도 안 지나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와 사이즈 디멘션을 정확하게 해서 시공도면을 잘 만드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감리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나중에 댔다고 그러고 또 새고 또 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코킹이 없는 공법으로 겹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킹 그거 얼마 가겠어요? 내부도 아니고 외부인데.

○ 문화재 설계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앱스 쪽에 있는 수키와가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 문화재 설계자

이 경사가 많이 급한 상황이어서 많이 쏠리는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습식과 건식을 잘 혼용해서 걸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속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 000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 걸이 같은 것 없나? 걸쳐놓는 것. 구멍 뚫어서 계속 걸쳐 놓는 것.

○ 문화재 설계자

보통 습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정을 박아서 고정을 시킬 수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 중구청

와정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 바닥 자체가 전통한식처럼 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면에 구배 잡아서 싹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정이 없고 바탕 면에서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올라가서 확인은 못해봤지만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시공이 들어가면 디테일한 시공계획을 짜서,

○ 000 위원

물은 저기서 새는 거죠? 앱스는 안 새요?

○ 중구청

예. 그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와 쓸림 때문에 그냥 보수범위를 추가로 잡은 겁니다.

○ 000 위원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한식기와 올린 부위를 이번에 원래 사업범위에서는 없었잖아요.

○ 중구청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손댄다는 게 저도 옛날 저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부터 저렇게 한식기와가 됐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것을 만약에 손대면 저 옆에 또 있잖아요. 앞에 시청 광장하고 그 앞부분 건물이 없어지고 지하로 가면서 굉장히 노출된 부분이 저 부분인데 사실 올라가서 보고 이게 ‘이런 지붕이 여태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것은 예산도 그렇고 괜히 손댔다가... 저것을 손대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썄요.



○ 000 위원

저것은 전통적인 한식기와의가 아니고 장식으로 바닥 밑에 있는 콘크리트 면에 아마 붙여놨을 겁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B단면 있잖아요. B단면을 보면 결국에 문제가 이쪽 구배에서 나오는 물이 넘쳐서 저것을 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해도 내 생각에는 넘쳐 올라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물이 돼서 이쪽으로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또 물 새요. 그러니까 그 단면적이 얼마큼 돼서 용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봐서 변경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장 코킹만 떼서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지붕면이 얼마나 돼요?

○ 문화재 설계자

이게 50정도 돼요.

○ 000 위원

그럼 물이 단이 얼마큼 나와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해보고 그냥 그거 물 샌다고 달려들어서 하면 되나?

○ 문화재 설계자

이쪽 부분에는 선홈통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 000 위원

그게 아마 내가 보면 계속 물새는 게 아니라 별안간 호우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거나 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용량이 적으면 다른 방도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것은 임시변통 같아요. 저 넘치는 게 핵심이라면. 동판을 갈면 뭐해, 용량이 안 되는데. 거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면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물이 얼마큼 되는지 나름대로 강우량이 얼마가 와서 계산, 계산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봐서 저게 안 되겠다고 그러면 변경을 과감히 해야지 지금 같이 하면



내년에 또 셸 텐데요.

○ 문화재 설계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동판과 동판 한 판의 이음 길이도 충분하지 않았고 이 사이가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렇게,

○ 000 위원

그게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아주 가늘더라도 타고 오거든요. 물 타고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 000 위원장

경사지붕은 손을 댈 수 없는 거고 저게 창도 없이 오픈된 개구부이기 때문에 그 턱을 좀 더 올려서 개구부 밑의 선을 줄이는 거죠. 더 올리는 것. 그 방법밖에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건물이 가운데 탑의 개구부가 이쪽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현장에서 그게 안 보이면 다만 10cm라도 올려주는 방법이 있죠.

○ 000 위원

파란 게 니은 자 뒤집어 놓은 것하고 물은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지. 보면 그 지붕의 반쪽은 다 이리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이 노란색 부분에. 그렇죠? 그게 구배가 되어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예. 박공이에요.

○ 000 위원

박공이 어쨌든 그 물 반 정도의 면적이 이리로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 같은 게 어차피 계산이 안 되고



옛날식으로 했겠지.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요새 같은 때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올라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뜯어내고 다시 해봤자 또 새요. 면적을 넓히든지 흠통을 하나를 더 양쪽으로 빼든지. 빨리 빼려면 아까처럼 똑같으면 되지만 이쪽에는 흠통 못 다나?

○ 문화재 설계자

이쪽은 지붕이 밑에 또 있어서 이 지붕을 타고 또 내려갑니다. 여기 밑에 1층 지붕이 또 있어요.

○ 000 위원

저 단면적이 얼마예요? B단면 자랐을 때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물차면, 그 단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B단면 우측이요. 단면 잘랐잖아요. 거기 단면적이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 문화재 설계자

B단면 우측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각형 단면에 물이 몰릴 것 아니에요.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로 주니까 단면적도 적네요.

○ 000 위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 000 위원

예. 갈아서는 별로 효용이 없어요. 다시 생각해봅시다. 우수를 한 번 다 계산해봐서 모자라면 흠통 하나 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새로 지은 거예요? 어느 쪽에 붙인 거예요?

○ 000 위원장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에요.

○ 000 위원



예. 그러시죠.

○ 중구청

보충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작년 7월에 성공회 성당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위의 종탑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회반죽이 위에서부터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갔더니 종탑의 경사면 만나는 나무와 연결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도 첨부했는데요. 그 부분이 네 덩이 정도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사람 주먹 만한 것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시급하겠다. 여기는 주말마다 미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지붕 쪽에 누수 됐던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 안쪽에 회반죽이 추가로 떨어지는 게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을 뜯어내고 보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붕 누수되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고 중요하지만 내부 보수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의 현장의 도움을 받아서 옆의 파편 같은 것은 작년 8월에 다 뜯어낸 상태예요.

○ 000 위원장

뭘 뜯어냈다고요?

○ 중구청

옆에 탈락되고 옆의 면들이 추가탈락 우려가 있어서 그 사이 탑에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옆 부분은 다듬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내부는 시급하다는 말씀이죠?

○ 중구청

예.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내부만 하고 바깥에 저것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중구청

그렇죠. 저게 직접적인 원인인 거죠. 저것을 타고 내부 쪽으로 침투되다 보니까 회반죽이 붕 뜬 거고요. 저 부분은 일반적으로 선홈통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유량은 당연히 계산해서 그 정도의 사이즈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그것을 미처 전체적인, 아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면을 계산해서 선홈통 사이즈가 충분한 우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홈통은 하나 더 내는 수밖에 없어요.

○ 중구청

동판 자체가 감아올리기 해서 틈이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000 위원

그 틈이 왜 거기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요. 그 의미가 없어요. 코킹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물이 거기 차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밑으로 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천정 거기만 자꾸 핑크를 때워서 뭐 해요.

○ 중구청

예.

(중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낼까?

○ 000 위원

지붕면 우수에 대해서 양이나 홈통 같은 것을 재산정해서 충분하지 않으면 밑으로 홈통을 하나 더 내든지.



○ 000 위원장

그런데 홈통이 널 위치가,

○ 000 위원

아니면 그것을 좀 크게 해야지. 저는 근본적으로 저 B단면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호우가 갑자기 오면 넘친 다음에 오래 댔다가 타고 올라와서, 줄 줄 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넘친 게 내부에 그렇게 흔적이 남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판을 간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것에 대한 것을 우수처리가 되게끔 해서 공사하도록 해야지 그게 근본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기 또 장마철이 오고 작년엔 누수가 돼서 그런데 조건부로 해서 실제로 할 때 몇 분이 그때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 좋을까요? 다음 달에 하겠다는데 장마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일단 그 방안은 공사 다시 해놓고 현장에서 자문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러면 종교시설이 돼서 많이...

○ 000 위원

아니,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 되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해요?

○ 000 위원

아니, 일을 할 때 그 방안을 제시하면,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기본 개념상에 물이 이만큼 쌓인 것을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 거기가 넘친다고 그것만 막아서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000 위원

아니, 지금 장마가 오니까 현장에서 몇 분이 가서 거기에서 방안을 제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시해서 하면 행정적으로도 좋죠. 너무 또 저것을 반려키고 다음에 하면
장마 다 지나서 7월에 또... 여기는 안 하는데 시행청도 사정이 있고 또
종교시설이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실제 일을 하면서 그 변경은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일단 조
건부로 하고 몇 분 자문을 받아서,

○ 000 위원

흙통 널 데가 없어요. 물 빼는 데가 너무 길어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저 내부 오염된 것은 빨리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
장 자문을 해서... 제 생각은 그 방법은 개구부에 10cm 정도 더 올려서 동
판으로, 여기는 창이 아니거든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튕겨서도 들어오고 한데, 지금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오버
플로우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밖에서 볼 때 보기 싫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요.

○ 000 주무관

그럼 현장 자문은 어떻게 할까요?

○ 000 위원장

말 꺼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죠.

○ 000 주무관

위원장님, 000 위원님이 현장자문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 성북구청

상허 이태준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문화재 심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지금부터 상허 이태준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문화재 심의 내용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문화재 양각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문화재 주변과 보호구역선과 저희 신축대지 경계선에 여러 가지 최단거리를 몇 차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거리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하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15.3m로 가장 짧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표면 산정기준에 의해서 가중평균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거해서 저희 대지면에 있는 건물 이 접한 부분을 수평거리로 다 가중평균해서 이 가중평균 레벨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결국은 최단거리 15.3m 그다음에 가중평균한 레벨에서 7.5m 올린 높이에서 27도 양각선을 산정해본 결과 저희 건물이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 레벨이 이태준 가옥의 가중평균 수평면입니다.

그다음 내용으로는 전과 동일하고요. 석채나 이런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 평면이나 레이아웃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잠깐 언급을 못 드린 부분은 최대 높이가 13cm 정도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성북구청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10대 3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놓친 부분이 10대 3에서 조금 모자라서 이 경사를 조금 들다 보니까 13cm 정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이 경사 부분인데요. 이 경사부분은 양각선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도록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당초하고 크게 바뀐 게 내용은 뭔가요?

○ 문화재 설계자

당초와 크게 바뀐 부분은 건축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높이가 13cm 정도 올라갔다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양각 선정의 기준이



미비해서 그 양각 산정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드린 겁니다.

○ 000 위원

아무리 양각이 괜찮아도 건물 높이가 제일 중요한데 건물 높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나요?

○ 문화재 설계자

네. 그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사진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13cm 정도 지붕의 용마루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배경은 성북구청의 지구단위지침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사유가 뭐예요?

○ 000 주무관

보류됐던 게 기준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양각에 대한 것하고 가중평균 부분들을 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그 조건을 검토한 겁니다.

○ 문화재 설계자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이 최단거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만 있어서 이 최단거리에 대한 기준이 미흡했다는 설명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거리를 세세하게 나누어 본 결과 가장 최단거리를 구하게 됐고요. 그다음은 이태준 가옥의 현황 레벨이 경사가 쳐 있는데 저희가 이 레벨의 최상위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레벨이 있는 것을 가중평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한 내용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 양각산정도 봐 봐요. 기준을 건물 바닥에서 7.5m 높여서 거기서 양각을 주니까 저것은 무한대죠.



○ 문화재 설계자

그 기준은 사대문 성곽 밖에서는요. 이 문화재 지표면,

○ 000 위원

저렇게 지붕보다 높이 해서 거기서부터 양각을 잡으니까 전혀 해당이…
그렇잖아요?

○ 문화재 설계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심의기준에 보면 이 지표면 자체가 경계선으
로부터 7.5m 올려서 양각 27도선을 지키라는 건데 저희는 이 대지가 경
사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경사진 대지를 가중평균 한 다음에 7.5m를
올려서 27도선을 그으라는 주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 높이를
다시 산정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000 위원

건물에서 얼마의 간격을 띄워는 하는 거예요? 얼마 띄운 건데요?

○ 문화재 설계자

지금은 여기가 이격거리의 최단거리가 15.3m로 이게 가장 근접한 거리입
니다.

○ 000 주무관

그 당시에 어느 지점을 가지고 양각을 잡았느냐고 모호하다고 해서,

○ 000 위원

이렇게 하면 무한대지. 건물에서 7.5m 높여서 거기서부터 잡으니까 걸릴
게 없지.

○ 000 위원

바로 뒷집은 저기네요. 지금 신청하신 대지 말고 바로 밑의 것.

○ 문화재 설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이 건물도 굉장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 000 위원

6.5m, 높다. 그렇죠? 축대.

○ 문화재 설계자

예. 기존의 여기 축대 6.5m하고 이 위의 대지와 저희 신청대지하고 여기 6.5m 떨어져 있고요. 이 대지와 이 밑의 상허 이태준 가옥이 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축대공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이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하 구조물들이 후퇴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느냐가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가중평균도 필요하셨구나.

○ 000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높이 기준이 법적인 것은 위반되지는 않았는데, 건물형태나 이런 것을 가 지고는 이야기할 그제 없죠?

○ 000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려 보낼 때 이것은 심의이고 기타 건축 법 관련해서는 재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내려 보낼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니다.

○ 000 위원

양각 땅은 그림 심의에 왜 올라왔지?

○ 000 주무관

그러니까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문화재 보존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행위 당시의 허용 기준에 맞춰서는 했지만...

○ 000 위원장

지붕이 경사지붕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있나요?

○ 000 주무관

그것은 아까 말한 성북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경사지붕 하는 경우가 슬림화 되니까 여기서 무단건축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달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 경사지붕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저럴 경우 낮은 부분 옥상은 flat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의 그 조항에 문제가 없나요? 지붕이라 함은 제일 최상층만을 이야기하는데.

○ 000 주무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려 보낼 때 이것은 문화재 영향 부분이고 만약 형태라든지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글쎄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문화재와 조화되지는 않는 디자인 것 같은데 디자인을 해놓은 것은 그렇게 또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어쨌거나 이것은 그냥...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안 걸리면 가는 거죠. 다시 시비 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평한 부분은 나중에 보나마나 증축할 거예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이것은 원안 가결된 것으로 할까요?

○ 000 위원장

예.

(성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 성북구청

성북구 두 번째 안건이고요. 장위동 김진흥 가옥, 저번 5차 심의 때 부결이 됐던 건이고요. 부결사유가 문화재를 왜소화시킬 정도로 신축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번에 규모를 줄여서 다시 한 번 심의를 올려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사무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이 부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조정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목차이고요. 지금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정일이 1977년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다음과 연관성이 있어서 미리 밝혀두고 갑니다.

사업개요에서 용도가 다세대주택하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 다세대 주택만으로도 한 세대가 감소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면적이 줄어들면서 일단 5층에서 4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30% 정도가 감소됩니다. 사업하는 쪽에서 용적률 30%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북구 특성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위치는 여기가 김진흥 가옥이고 지금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작은 필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앞이 5m 도로입니다. 이게 국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쪽이 1m 초승달 같은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김



진흥 가옥을 사용하고 있는 선학원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까지 해서 도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 앞에 있는 현황 도로가 5m이고 뒤에 점유하고 있는 것도 5m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10m가 넘는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선학원이라는 곳의 사유재산이 되어서 이곳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도면의 하단에 보시면 이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브리핑 차트에는 없는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작년 12월 21일에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됩니다. 문화재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기록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화재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 주변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사고팔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 푯말을 보면서 문화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계종 선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일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수사항이다 보니까 원래 당초 2005년도에 성북 쪽에서도 특히 장위동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길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청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길음뉴타운이라고 해서 성북구 대부분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통제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땅을 팔고 갈 사람들 가고 또 투기목적으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게 1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면서 그다음에 도시재생 개념이 들어오면서 2016년도 12월에 직권 해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 30일에 이 구역이 해제됩니다. 이 구역 해제 안에 김진흥 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이 큰길 반대편에는 이쪽은 해제되어서 지금 다세대들, 주로 6층 규모입니다. 6층 규모가 쪽 들어서서 거의 빌라촌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3월 30일자로 해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이번 5월 말 일 기준으로 해서 이 8구역이 다 해제됩니다. 지금 완전히 해제되어 있고 각기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위성사진인데요. 이게 김진흥 가옥이고 이쪽이 우리은행 체육관,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m 도로가 있는데, 이 레벨이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레벨 넣은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 앞 도로에서 김진흥 가 본체 마당하고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레벨차가 3.5m~3.8m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 김진흥 가 뒤쪽은 앞 도로에서 6.2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쪽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마을 안에 문화재 김진흥 가옥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의가 부결되고 제가 저녁에 현장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저때 전경사진이자 주변사향입니다. 밤에 가서 과연 대지 앞의 골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깊은 밤도 아닌데 사람도 별로 없고 가로등도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1970년대 뒷골목 분위기가 납니다. 이쪽은 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진흥 가옥 뒤쪽 이게 경사도로입니다. 그나마 이쪽에는 빌라들이 들어서서 도로가 6m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좁게 골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4m 미만의 도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결조건이 된 문화재 왜소화 방지. 이것은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준을 보면서 왜소화 방지에 대해서 제가 단면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존구역 50m 범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 층을 낮추고 주변 건물을 실제 높이에 맞춰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본체 레벨하고 도로 레벨하고 3.7m 차이가 납니다. 27도 양각 개념이고요. 본체하고 우리 건물하고 31.73m, 뒷 건물하고는 20.1m가 납니다. 양각 비스듬하게 피해가는 상황인데요. 왜소화라는 게 건물한 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높기 때문에 왜소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소화에서 높이 개념이 아니라 부피개념도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땅은 80평이고 김진흥 가옥 땅이 759평입니다. 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왜소화하고는 전혀... 오히려 건물 자체가 부피 개념에서는 상당히 왜소한 거고 김진흥 가옥 이 터나 이런 부피 개념에서는 그런 것은 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각계획도, 수정해서 한 층을 낮추면서, 저때는 5층 가서 경사가 있었는데 한 층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각에서 전체 높이가 2m 정도 줄어버렸습니다. 줄어버리고 양각 개념도는 저번과 동일합니다. 건물 층수만 낮추고 위치는 똑같습니다.

개요에서 보면 1~5층 해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두 세대씩 4층이 되면 여덟 세대입니다. 상가 하나 있고. 지금은 한 층을 날려버리면서 여섯 세대, 1층의 상가를 주택으로 해서 일곱 세대입니다. 제가 부결을 받았을 때 건축주로부터 “이런 상황이니까 4층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했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을 때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땅을 되 파십시오.”라고 하니 “이 사실을 알면 땅을 되팔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땅 팔 수 있는 규모로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4층으로도 한 번 해봅시다.”라고 4층으로 설득해서 두 세대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이 두 세대가 땅 샀다는 금액하고 건축비하고 그리고 이 동네 분양가가 강남하고 달라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분양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거의 사업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땅값 9억 5천에 공사비 10억, 분양가가 세대당 일곱 세대, 20억 이러니까 얼추 비슷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되팔 수는 없지만 건물 지으면 땅값 유지하면서 팔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저도 층수가 낮아서 개발이 안 되면 아까 제가 야간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 골목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금 집을 지으니까 5m 도로에서 건물을 약 2m 정도 후퇴해서 이 공간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양각 개념이 아니라 건물이 앞으로 돌출돼서 문화재가 가려지는 것보다는 오픈 개념을 짰을 때 문화재가 더 살지 않겠냐. 지금 이 동네 자체가,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게 당초에 5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층을 날리면서 시원하게 푹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세대도 현대주택의 방법면이라는 겁니다. 김진흥 가옥 자체가 옛날부터 마을이었고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흥 가는 그 옛것을 버티온 것이고 이쪽에 한옥이라도 여러 채 남아 있었으면 차라리 한옥 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한옥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대부분이 다 세대 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과거의 문화재 개념의 가옥도 동네 안에 있어야 현재와 과거가 대비될 때 오히려 문화재가 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만일 여기서 3층이나 2층 규모로 갔을 때 개발이 안 되고 계속 갔을 때 이 도로변, 이 주변은 계속 슬럼화 될 거고요. 문화재도 같이 오히려 남루하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것은 횡단면도 줄여놓은 것이고요. 평면도에서 1층 상단을 역지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3층에서 2세대씩 들어갑니다. 4층에 발코니를 주면서 또 2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붕평면도, 그냥 경사지붕으로 하고 이렇게 네모진 부분은 엘리베이터 박스. 그리고 입면도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도면을 보시면 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통 김진흥 가옥의 한옥에 대한 이미지를 차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화재를 고려해서 3층 건물이나 4층 건물, 5층 건물에서 한옥의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갓 쓰고 구두 신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축가들에게 항상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건데요. 1층의 주택 벽을 갖다가 전돌 개념으로 집어넣고 창문을 격자창을 넣어서 전통한옥에 있는 격자느낌을 주도록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현대주택의 입면이고 김진흥 가옥은 우리 전통 가옥의 입면입니다. 같이 어우러지는 게, 오히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층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삐죽한 것보다 차라리 안정감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1층 필로티 부분에서 기둥은 계속 전돌 정도를 유지하면서 수평 강조하고 격자 창문을 넣어줬습니다.

그다음 단면도입니다. 이것은 양각 개념에서 설명드린 대로 층수가 날아가고 경사지붕을 다락으로 용도를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서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말에만 전돌로 하지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것도... 아까 조화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데가 없을까요? 그래도 앞에 있는 한옥이랑 건축가가 이런 면으로 해서 진짜 고심해서 해봤다고 하는 게...

○ 문화재 설계자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전체로 갔을 때는 전돌 자체가 무채색에 흑색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개 층 정도 더 올라가면 이태준 가옥의 땅 지면하고 비슷해집니다. 거기 처마선하고 같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붙이는 거 아니죠? 드라이비트.

○ 문화재 설계자

그런 것 아닙니다.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벽돌이죠. 옛날에 전통사찰에 쓰는 전통 색상하고 같습니다.

○ 000 위원

대지는 현재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현재는 30~40년 된 건물입니다. 아주 낮은 2층 블록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가면 외지인이 사서 들어왔으면 개발이 안 되면 놔두면 되는데 현지인들이 제법 남아 있거든요.

○ 000 위원

아니, 지금 신청한 대지만 보자고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이쪽 뒤쪽이니까 이 건물입니다. 이게 30년 정도 된 블록건물이고 내부에 콘크리트 건물도 아닙니다. 블록에다가 옛날 개량식 목조지붕틀.

○ 000 위원

현재는 몇 층이에요?

○ 문화재 설계자

지하 1층에 지상 1층.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2층 정도 높이입니다.

○ 000 위원

저게 위치적으로 김진흥 가옥에서 나오면 대문 바로 앞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위압감이 있다는 거지.

○ 문화재 설계자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2m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쨌든 이것은 지으면서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벽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집을 하나 지으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옆집도 보면 3층이잖아요. 이것처럼 4층이 되면, 옆집이 지금 도면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이 건물도 거의 30년 됐습니다.

○ 000 위원

30년이요 뭐고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지금.

○ 문화재 설계자

결국 이 뒤쪽이 다 개발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슬럼화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면에 이게 도로였으면 이렇게 진입하면 되는데 도로를 점용하고 쓰고 있으면서 차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려서 나갑니다. 이쪽 모퉁이가 입구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통가옥이라고 그러면 모퉁이를 절대 대문을 잡지 않죠.

○ 000 위원

아는데 현실적으로 신청지가 대문 바로 앞에 있다는 거지. 2m 도로 건너에 바로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제가 다세대 설계를 하는 것이지만 저도 성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성북의 도시계획 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이쪽에 심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제가 이 김진흥 가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인 작은 필지 40평, 주로 40평대, 우리는 두 필지 합해서 80평이고, 40평대입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우리은행 기업이 때문에 이것은 현재 5층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날아가니까 어차피 개



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쨌든 사회기구 개념에서 이 전체를 블록화해서 문화재 개념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이 동네에서 현대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이 블록 자체가 문화재개념으로 살아나면서 동네 주민에게도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문화재로만 가둘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픈하면서 같이 어울려지는 게 있으면 오히려 도심 속의 공원화 된 문화재, 사실 저는 지역건축가로서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성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 문화재 설계자

이번에 심의 받을 건물은 김진흥 가옥 근처에 있는 장위동 75-303의 세필지 한 동을 짓는 건물이고요.

○ 000 위원

그거 앞의 비슷한 데 들어서요. 그 근처의 상황만 말씀해 주시고 건축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재 설계자

주변 현황은 2층~4층 건물입니다. 도로는 6m, 4m 도로입니다. 처음에 저희의 계획은 7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무래도 문화재도 있고 해서 6층으로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6층으로 10세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층은 저희가 여러 세대를 한 것은 아니고 층당 2세대씩 해서 10세대, 지상 6층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저희 대지는 문화재 최단거리로 21m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법에 의한 양각 감안했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장

외피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외벽 건물이요.

○ 문화재 설계자

현재는 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마천석이나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밝은 색 계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임의사항이니까요.

○ 000 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저번 포항 지진이 나서 가보니까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다 뽑혀요. 지하로 내려간 게 엘리베이터만 내려가 있고 기둥은 안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걸 못 받아서... 대칭으로 잘 하셨는데 구조적인 입장에서 기둥이 인발력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아마 대석 깔 때는 지면에 붙박이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현상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구조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설계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안전하게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문화재 설계자

그래서 저희가 구조검토를,

○ 000 위원

구조 한 사람이 해왔는데 제가 구조 전공인데 그게 모자라서 별도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문화재 설계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000 위원
성북구에서 문화재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성북구청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성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
법상 걸리는 것 없잖아요.

○ 000 위원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없지만 문화재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 000 위원
여기에 절대 보존구역이 없고 그건 왜 없어, 여기는?

○ 000 주무관
이건 했죠. 그런데 이것은 심의구역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 000 위원
해주기는 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축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것 같은데.

○ 000 주무관
다른 구역들은 구역별로 해서 그 허용기준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은 어느 법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현재 심의 들어온 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첫 번째 것은 노력한 것 아니에요?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주무관

그렇죠. 한 층 낮춰서 한 거죠.

○ 000 위원

건축주를 설득해서 한층 낮춰서 한 건데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문제가 좀 더 커질 것 같고. 제 생각에 두 번째 것은 지금 첫 번째 것보다 설계를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뒤의 것이 5층이니까 4층 정도면 할 말이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은 현재는 4층이었고 주변의 가장 가까운 것도 5층 정도인데 현재 6층으로 계획이 왔으니까 두 번째 것은 한 층 정도 더 낮춰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문제가 필지를 두 개인 것을 합해서 둘 다 덩치가 커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높이를 대충 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현상변경 기준안이 심의구역으로 다 묶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 000 주무관

구분은 했는데 여기 들어온 데는 심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문화재마다 이런 게 서울시도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해요. 문화재 한 건, 한 건마다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내 개인의 생각은 옆에도 3층이고 하니까 3층이 맞는 것 같아요. 4층 해 주면 최소한 4층이 들어오는 거죠. 한 번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못 막는 거지. 방어선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게 대문 앞에 있고, 4층도 높아 보인다고. 옆에 3층이니까 3층으로 가야 하는데 반발이 심하겠지. 이것은 제 생각이고.



○ 000 위원

뒤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000 위원

개별심의규정 아니었어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영향성 검토,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1구역 해서 보존구역, 2구역 해서 양각 27도 이내면 건축 허가를 개별적으로 내고 27도개 넘어갈 경우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문화재청 규정으로 본다면 27도 이내면 무조건 구에서 협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올라 왔다는 게 뭔가...

○ 000 주무관

허용기준에 심의구역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2월 심의도 했고 그때 자문 받아서 했던 것을 보면, 작년도 12월 21일에 허용기준안 고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청지들은 심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들은 개별로.

○ 000(문화재연구팀장)

심의하셔서 27도 이내에서 특별히 규제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의 것은 한 층 낮춰서 4층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설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외피가 전부 다 화강석이고 1층만 전벽돌로 했는데 화강석을 붙이면서 콘크리트 골조에 단열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뭐 하겠죠. 그렇죠?



○ 000 주무관

예. 그렇죠.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2,000㎡미만은 별도로 제3의 건축사가 또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 000 위원

건물외장은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000 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것은 디자인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이것은 입면을, 그래도 여기가 20m 가까이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더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의 것은 더 이상 뭘 하기가 좀... 어때요?

○ 000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뒤의 것은 회색벽돌로 해서 새카매서 오피스텔도 아니고 일반 다세대주택인데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창만 일률적으로 뚫려 있어서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높이는 제한을 할 수가 없죠?

○ 000 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 000 주무관

양각 기준에 맞더라도 영향성에 미친다 해서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양각을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제일 마지막 것은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 앞의 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앞의 것은 원안가결하고 뒤의 것은 재계획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래서 외관의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접한 문화재와 잘 조화되도록.

○ 000(시문화재관리팀장)

높이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 000 위원장

아, 높이도.

○ 000 주무관

왜소화 부분도 이야기를...

○ 000 위원

애기하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겠죠.

○ 000 주무관

그럼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

○ 000 위원장

예. 마지막 것.

○ 000(문화재연구팀장)

다음은 봉은사 지정심의 건입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사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고 심의 30일 거치고 지금 최종심의가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조건을 봉은사 측에서 보완해서 왔습니다.

(강남구청 등 관계자 입장)

○ 문화재 설계자

먼저 판전에 대해서 간단한 연혁을 준비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건너뛰고요. 바로 저희가 준비한 보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판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878년에 신축된 판전의 담장에 대한 내용이며 두 번째로는 1989년에 촬영된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판전 앞 석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판전 내 문화재 및 현판에 대한 배치도를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2년 발견된 화엄판전상량문에 탈초와 해제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판전의 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전의 담장은 1878년에 신축되었으며 1917년 매일신보의 사진을 통해 담장과 문, 계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장과 문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1911년부터 1943년에 걸쳐 촬영된 유리원판대판 사진의 판전의 모습에서 이미 담장과 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봉은사에서 1980년부터 근무한 조광제 거사의 인터뷰 결과 1980년 그가 봉은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유리원판사진에서 보이는 계단과 석축은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에는 판전 앞에 우물이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이 마르자 이를 복토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판전의 담장과 문이 사라진 시기는 매일신보가 촬영된 1917년에서 유리원판이 제작된 1943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 벌어진 1939년 봉은사 화재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총독부에 제출된 화재피해보고서에는 판전의 담장에 대한 피해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등입니다. 1990년 촬영된 판전 사진에는 석등 두 개의 모습이 확인되어 2013년 현재의 석등 조성 이전에는 석등 두 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찰 내 기존의 석등 조성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앞서 언급한 조광제 씨의 인터뷰만이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1980년 봉은사에 들어왔을 때 판전 전면에 작은 우물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이 마르자 전체를 복토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복토 당시에는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판전 앞에 석등이 없었으며 이후에 석등이 언제 건립되었고 2013년 이전 어느 시기에 이동됐는지는 본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찰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동된 두 개의 석등은 현재 판전 좌측 신축공사 부지 전면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석등 두 기의 건립연기는 조광제가 근무한 1980년부터 석등이 촬영된 1990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판전 내 문화재와 현판 배치도로서 먼저 문화재는 판전 비로자나불도와 신중도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현판은 총 9개의 배치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배치도는 77페이지와 현판 배치도는 51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2년에 발간된 화엄판전상량문의 탈초와 해제자료를 보고서 22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 000 위원

봉은사 측에서는 석벽 2기는 원위치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그것은 봉은사 측에서 지금 신축부지 앞에서 옮겨놨는데 아까 사진에도 봤듯이 총 3개가 있었고 그중의 2기는 저희가 거기에서 이동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화재가 뭘로 됩니까?

○ 000 위원

서울시 유형문화재. 학술조사가 안 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해보자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한 거죠. 건물로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강남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문화재연구팀장)

판전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위원회 때 다 말씀 된 것이고 단, 학술용역조사를 좀 더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적절하면 지정 심의 가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

○ 000(문화재연구팀장)

다음은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선 검토 건입니다. 건이 많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시민의 권익이라든지 여러 차원을 감안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하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보호조례 제10조에 의해서 10년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작년 6월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 세 분을 추천해 주셔서 현장조사 마치고 지금 현황 측량을 하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건입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건은 총 69건입니다. 이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32건, 기념물이 6건, 민속문화재가 26건, 문화재 자료가 5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만약 문화재보호구역이 확정이 되면 30일간 심의예고 공고를 거쳐서 다음 심의 때 여기에 따른 의견이 올라오면 의견을 첨부해서 최종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전문위원 세 분이 현장조사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쳤고 그 현장조사 결과 신규지정 및 지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건이 10건, 현 상태 유지가 48건입니다. 나머지 건들은 저희 실무자 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오기가 있거나 그런 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보시면서 신규지정부터 10건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6호 삼군부 청헌당 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것으로 청헌당이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청헌당 처마 끝선에서 30m로 보호구역을 정하자고 현장조사 하시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적정한지 위원회에서 보시고 만약에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30m의 근거는 뭘까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30m는 문화재보호법에 목조건조물인 경우에는 최고 100m까지 정할 수 있는데 현장사정을 보니까 30m선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000 위원

육사 안에 있는 거죠?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육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지정해놔야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유형문화재 제35호 성공회 서울성당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남쪽에 보시면 건물이 보호구역 경계선이 성공회 성당 남측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곽선과 일치하게 하라고 해서 약간 보호구역이 증가되는 건입니다. 면적은 1,254.9㎡로 변경되고 보호구역은 3,226.5㎡로 변경되는 건입니다.

○ 000 위원장

줄어들었습니까?

○ 000(문화재연구팀장)

늘어났습니다.



○ 000 위원

저기는 건물도 다 포함도 안 되어서 진행돼서 저기는 건물 따라서…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건물 따라서 다시…

○ 000 위원

그런데 왜 불일치가 됐던 건가요? 지적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옛날 지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담장 경계선은 유지하되, 동쪽으로는 4m 정도 그리고 보호구역을 설정해야겠다고 현장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30호 승동교회입니다. 여기도 문화재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한 위원들께서 보호구역을 담장 경계선과 일치시키되 전면과 남쪽의 처마 끝은 돌출부에서 10m 정도가 현장 주변상황을 봤을 때 적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속문화재 제5호 와룡묘입니다. 남산에 있는 것으로 행정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건물 돌출부에서 사면으로 약 50m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 경계선을 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현장조사 때 얘기해 주셨습니다.

○ 000 위원

이것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땅은 국지하고 공유지입니다.

○ 000 위원

너무 크게 해놓으면…



○ 000 위원

거기는 누가 침범할 데는 없어요. 남산이니까.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남산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고 100m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50m 선이 현장에서는 적정할 것 같다고... 양쪽에 능선이 있는데 능선까지는 충분히 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7호 용강동 정구중 가옥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정구중 가만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한 결과 도면의 왼쪽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담장선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선을 일치시키고 남쪽이 처마 끝선이 보호구역 라인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일치시키라 해서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민속문화재 제32호 만리동 정영국 가옥입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문화재구역 면적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227.3㎡였는데 244.7㎡로 변경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지금 북쪽과 동쪽 면을 담장 측량 후에 일치시키라고 했는데 현황측량을 해서 보니까 남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쪽 상부지역이 약간 담장 일치선하고 달라져 일치시켰습니다.

문화재자료 제1호 옥인동 박노수 가옥입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문화재 면적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173.2㎡에서 174.7㎡로 1.5㎡의 면적이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 현재 필지 전체를 보호구역 경계선으로 정하는 게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자료 제33호 진관사 칠성각 그리고 제34호 진관사 독성전에 대한 심의입니다. 독성전과 칠성각을 측량을 해보니까 지정 고시 당시에는 칠성각이 18㎡이고 독성전이 8㎡였는데 변경된 건은 59.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당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찰 측과 현장조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적정한 선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50m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담장경계선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10건에 대한 문화재 신규 지정과 약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오기인데 소유자가 지번이 변경된 것, 유형 문화재 제18호 수표교는 소유자가 국유에서 서울시로 변경된 건입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제71호 옛 제일은행 본점은 제일은행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로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4호 가회동 한씨 가옥입니다. 문화재구역은 동양생명에서 안영순, 전재범으로 변경되고 보호구역은 안영순, 전재범, 조한상, 전흥국으로 변경된 건입니다.

그리고 민속문화재 제22호 가회동 백인제 가옥은 백낙현에서 서울시로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민속문화재 제30호 가회동 김형태 가옥은 김형태에서 김홍찬으로 변경되고 당초 2018년도에 측량했을 때 지번누락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회동에 16-8, 9-1, 8-3이 추가된 건입니다.

그리고 민속문화재 제9호 도정궁 경원당 가옥입니다. 소재지 지번이 변경됐습니다. 모진동에서 화양동 393-1번지, 그리고 하나는 모진동 12-3번지에서 화양동 312-3번지로 소재지 지번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락사항과 오기가 3건입니다. 유형문화재 제55호 정간공 이명묘역입니다. 당초 석물이 11기로 고시문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 현황측량도면에 보면 10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 및 석물 지번에 오류가 있습니다. 당초 월계동 766번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당시에 월계동 산59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물 제18호 구용산수위관측소입니다. 문화재구역 누락 지번이 있어서 추가된 건입니다. 청암동 169번지와 169-1번지가 추가됐습니다.

기념물 제19호 광통관입니다. 문화재구역 지번이 추가됐습니다. 남대문1가에서 남대문1가 19번지로 정정했습니다.

지번은 변경이 없고 지적 면적이 변경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제67호 흥천사 명부전입니다. 지적 면적만 46,483㎡에서 35,787㎡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현상 유지되는 48건입니다. 혹시 보시고 여기에서 변동이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유지 건 48건입니다. 유형문화재 제2호 봉황각입니다. 현재 상태 보호구역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6호 용양봉저정,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7호 성제묘,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8호 사육신묘,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20호 경희궁 승정전,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23호 석파정 별당,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25호 황학정,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33호 홍지문 및 탕춘대성,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37호 삼군부 총무당,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51호 기기국 번사창,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65호 화계사 대웅전,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66호 흥전사 극락보전,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72호 독도 수원지 제1정수장,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27호 조계사 대웅전,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31호 동아일보 사옥, 변동 없습니다.
 기념물 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변동 없습니다.
 기념물 제16호 배재학당 동관, 변동 없습니다.
 기념물 제20호 구세군 중앙회관, 변동 없습니다.
 기념물 제23호 해공 신익희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호 서빙고 동부군당,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3호 평창동 보현산신각,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6호 관성묘,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8호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0호 성북동 이종석 별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1호 상허 이태준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2호 반계 윤응렬 별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3호 원서동 백홍범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5호 경운동 민병옥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6호 월계동 각심재,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8호 관훈동 민씨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19호 운니동 김승현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0호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1호 송보사,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4호 제기동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5호 장위동 김진흥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8호 혜화동 김상협 가옥, 변동 없습니다.



민속문화재 제29호 체부동 홍종문 가옥, 변동 없습니다.
 문화재자료 제2호 가회동 이준구 가옥, 변동 없습니다.
 문화재자료 제38호 마포 최사영 가옥,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9호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9호 경희궁 흥화문,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56호 종묘 어정,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73호 탑골공원 팔각정,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102호 오운정, 유형문화재 제103호 침류각, 변동 없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32호 미국공사관, 변동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지정하는 게 혹시 부적절하거나 그다음에 변동 없는 게 변동이 필요한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30일간 예고를 거쳐서 다음 심의 때 최종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변동 없는 것의 심우장을 도면으로 보면 건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지, 47쪽이요. 제가 보기에 는 거기 오른쪽 건물이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선으로 보호구역 을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심우장이 건물형태가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서요. 처마가 아마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장은 최근에 사적 지정 신청이 돼서 아마 다음 심의 때 사적으로 올리는 심의를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거기 옆으로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선으로 물려있으니까 이상 하네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옆으로 통행이, 심우장이 왼쪽으로 가능하고요. 오른쪽으로는 민가 경계선 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이게 새로 지어서 도면이 옛날 것이라서...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도면이 옛날 것 같은데 창고 건물이 오른쪽에 하나 더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사적 지정 심의할 때 그때 현황 측량 도면을 보고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000 위원
59쪽의 백홍범 가옥도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예. 이것은 현장조사를 추가로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000 위원
56쪽 이종석 별장은 우물은 안 넣어도 되나요? 거기가 우물 자리 같은데.
- 000(문화재연구팀장)
그러면 민속자료 제10호 이종석 가옥도 현장조사를 한 번 해서 추가 보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판전의 경계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 000(문화재연구팀장)
판전은 기존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보호구역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하고 다음 심의 때 예고심을 한 번 더 하고 나머지 것은 예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안건은 다 끝났죠? 그럼 오늘 2018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는 오늘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달은 쉬고 그다음 달 8월



날짜를 정하죠.

(향후 일정 논의 중)

(산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6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